

■ 강진군수

황군수 '무소속' 표명에 후보 우르르

내년 강진군수 선거의 최대 이슈는 황주 흥(57) 현 군수의 무소속 도전 여부다.

전국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황 군수가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입지자들이 민주당으로 물리고 있다.

황 군수에게 대적할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강진원(50) 전 전남도 국장, 차봉근(63) 전 전남도의회 의장, 국영애(49)·황호용(65)·이종현(55) 전 남도의원, 유영진(60) 삼성화재 고문, 윤충현(56) 농어촌공사 강진안도 지사장 등이다. 김용환(53)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강진원 전 국장은 군수 출마를 위해 정년을 10년이나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윤동환 전 군수의 부인인 국영애 의원은 고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차봉근 전 의장과 황호용·이종현 의원은 도정경험을 살려 군수직에 도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지낸 유영진 고문은 다음달 재경 강진중·농고 총동문회장에 취임해 향우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계획. 연말께 회사를 사직하고 고향으로 귀거지를



옮길 예정이다. 유 고문은 중앙 무대의 인맥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윤충현 지사장과 김용환 국장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광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 진도군수

박 군수 사법처리 공백 입지자 몰려



진도는 박연수 군수가 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되면서 입지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내년 선거는 그동안 단체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도덕성과 청렴성이 표심의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후보군은 전직 군수를 비롯한 관료 출신을 중심으로 지역의원과 CEO 출신이 경합에 가세하는 양상으로 형성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군은 김경부(69) 전 진도군수와 양인섭(70) 전 진도군수, 김병동(68) 전 전남도의원, 박종석(60) 전 진도군 기획예산실장, 이동진(64)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이다. 여기에 진도군청 공무원인 김희동(60) 기획예산실장과 김희수(54) 환경녹지과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김경부 전 군수는 퇴임 이후 농촌생활을 하면서 지지기반을 다져왔고, 양인섭 전 군

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며 출마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이동진 전 사장은 한국투자신탁 사장 등 CEO 경력을 앞세워 재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사장은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석 전 실장도 지역 내 행사장 등을 돌며 얼굴 알리기로 분주하다.

최근 평예퇴직을 신청한 김희수 과장은 진도군 1개 읍·6개 면 전 지역에서 읍·면장을 거쳐 '다크호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동 실장도 주위로부터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는 남도문화예술진흥회 부회장인 설철호(57) 해남·완도·진도 위원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진도=박경우기자 hypark@

/진도=박경우기자 hypark@

■ 영광군수

무소속 후보군 합종연횡 촉각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9명의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였던 영광은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보궐선거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데

다 정기회(55) 군수가 지금까지 무난하게 군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탄탄한 조직력마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 경선보다는 정 군수에 맞설 무소속 후보군들의 합종연횡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정 군수는 협약 프리미엄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정 군수는 또 영광 갯벌마루 대회 개최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굴비특구 지정, 지역적 표지제 등 농어민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무소속 후보군 중에서는 군서면 출신으로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규련(46) 변호사가 군수 후보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 변호사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주위

에서 끊임없이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연말께 출마 여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규현(59)

전 영광군의회 의장과 장현(53) 호남대 교수, 전태갑(67) 전남대 명예교수 등 예상 후보군들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은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지역주민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이들 세후보는 그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하며 군민들과 접촉해 왔지만 면에서 현 군수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이다.

따라서 이 후보들이 연대할 경우 폭발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영광=조양기자 ischo@kwangju.co.kr

■ 함평군수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 완도군수

군수-의회의장, 민주 경선 빅매치

내년 완도군수 선거는 김종식(59) 현 군수의 3선 가도를 누가 막을 것인가가 관심사다.

김 군수는 민선 2·3기 동안 서남권의 해양관광 거점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이끌고 있고,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꾹꾹 완도군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는 평가다. 또 공무원들의 군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평가는 인기, 탄탄한 조직력도 갖췄다는 분석이다.

다만 3선에 대한 거부감은 어떻게 복복하느냐가 관건이다.

김 군수의 3선 도전에 맞설 후보로는 차용우(57) 완도군의회 의장과 박현호(58) 전 광양부시장, 김신(46) 완도군의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 중 차 의장의 행보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전남도의원의 옷을 벗고 기초의원으로 '유턴'한 것도 군수직 도전에 대한 불안이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차관련 전 군수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지지기반도 갖추고 있다. 차 의장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다양한 인맥이 강점으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김



군수의 최대 라이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선거에서 김 군수에게 패배한 박현호 전 부시장도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박 전 부시장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해를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 공천 경쟁보다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성이 점쳐진다. 박 전 부시장 측은 3선 거부감을 적극 활용하면 지난 선거 패배를 설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수의원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지만 민주당 공천에 뛰어들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열정적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경선에 뛰어들어 다크호스로 부상한다는 각오다.

김신 의원은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연말께 최종 결심을 굳힐 것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해남군민이 화합해 실추된 해남 이미지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 해남군수

복지보조금 횡령에 "공직개혁"

내년 해남군수 선거는 김종식 현 군수의 재선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직원의 복지 보조금 횡령 등이 불거지면서 입지자들이 저마다 공직사회 개혁을 주창하며 김 군수를 물어붙이고 있다. 해남군수 후보군으로 10여명이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가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 공천 경쟁을 거쳐 내년 본선에서는 2~3명의 후보로 압축될 전망이다.

박현호 전 군수가 뇌물수수로 불명에 퇴진하면서 재선권을 통해 입성한 김종식(59) 군수는 2년여 재임기간동안 흐트러진 행정 조직을 추스르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다만 직원의 복지보조금 횡령과 공통화 석지 비리, 자신의 선거법 위반 시비 등 군정과 관련된 비리사건이 있따라 터져 공천 경쟁에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 군수의 재선 도전에 맞서 김석원(52) 전 남도의원과 이석재(63)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재선 도의원인 김 의원은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연말께 최종 결심을 굳힐 것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해남군민이 화합해 실추된 해남 이미지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고배를 마신 이 전 부의장은 '안정 속의 혁신'을 강조하며 지역을 잘 아는 지역전문가가 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인 출신의 윤복현(53) 전 무등일보 부사장과 김형옥(60) 자연환경 대표이사도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박철환(50) 해남군의회 부의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무안군수

무안반도 통합, 남악지구 표심 변수

내년 무안군수 선거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교체 여부와 무안반도 통합, 남악지구의 표심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모든 입지자들이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에서 과열 우려까지 일고 있다.

서삼석(49) 군수의 3선 도전은 확실시된다. 서 군수는 전남도의원과 두 차례의 단체장을 거치면서 디져온 조직력이 다른 입지자들과 차별화된다 는 평이다. 또 무안 기업도시 내 한중산단 건설 등 군정 성과를 내세우며 사업 마무리를 위한 '한번 더'를 강조하고 있다.

서 군수의 3선 도전은 확실시된다. 서 군수는 전남도의원과 두 차례의 단체장을 거치면서 디져온 조직력이 다른 입지자들과 차별화된다 는 평이다. 또 무안 기업도시 내 한중산단 건설 등 군정 성과를 내세우며 사업 마무리를 위한 '한번 더'를 강조하고 있다.

서 군수의 3선 도전을 위한 대항마로는 정해균(61) 전 여수부시장과 양승일(64)·김철주(51) 전 남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4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정

전 부시장은 무안읍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밀박다지기에 돌입했다. 정 전 부시장은 무안국제공항·영산강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재단지 조성 등을 통해 무안을 국제 관광산업도시로 만들겠다며 출마 의지를 꼬리했다.

양승일 도의원은 "노인복지·청년실업·자출산·교육문제 등 당면 현안들을 지역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약사 출신인 김철주 도의원은 교육위원·재선 도의원 경력을 살려 특별하고 설립과 국제신흥도시 개발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박봉래(58) 전 무안군의회 의장과 나상욱(55) 목포무안축협 조합장, 김석원(42) 전 남도의원 등도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 신안군수

DJ 고향, 무소속 돌풍 또 불까

내년 신안군수 선거는 무소속을 고수하고 있는 박우량(54) 현 군수와 민주당 후보간 양자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경쟁이 더 치열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박 군수가 민주당에 입당해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강성종 의원은 자운면장, 지도읍장,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 등 30여년간 신안에서 공직생활과 의정활동을 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주민과의 염려진 인맥과 삼 주민의 생활상, 지역특성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신안군 복지단지 재단장을 거치면서도 신안군 복지단지 재단장을 역임한 김 전 의원은 토박이 농민운동가 출신답게 무공해농법과 청정해역에서 부를 창출, 농어민 소득을 확기적으로 증대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안군 입지 출신인 남상창 부군수는 신안의 빠져난 자연환경을 담은 수필집과 여행 안내서를펴내는 등 신안을 전국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남 부군수는 지방행정 전문가와 친선한 이미지가 강점이다. 연말



께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것인지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관선(52) 전 광주시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DJ 향수'가 위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제3보병사단장을 지낸 고기원(57) 무안·신안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kwangju.co.kr